

사 2 맛나는 세상

2026년 7+8월 vol.161

AI의
반응



VS

사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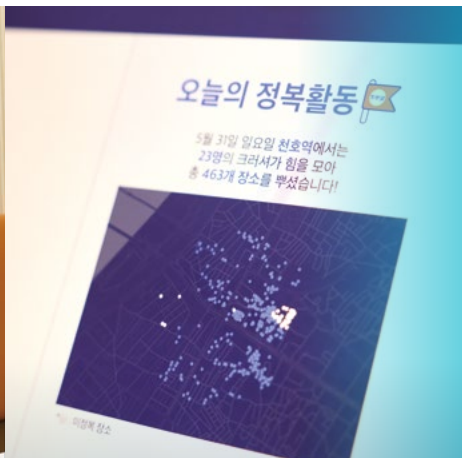


의지

GOOD-NEWS.OR.KR

삽화: 청록색과 연두색이 이어지는 배경 위에 AI의 반응 VS 사람의 의지라는 글자가 배치되어 있으며, 픽셀 글자와 손글씨 표현, 불꽃놀이가 터지는 듯한 그래픽과 화살 그림을 통해 AI의 반응과 사람의 의지를 시각적으로 대비하고 있다.

Contents



04

—— 프롤로그 ——

주체적인 삶을 향한 내면의 힘
의지

06

—— 테마 에세이 ——

알고리즘을 넘어,
스스로 선택하는 인간의 힘

10

—— 계속 써 내려간 이야기 ——

제21회 우정선행상 본상
수상 단체 ‘조용한 수다’

14

—— 청년 봉사 인사이드 ——

18년간 200회 넘게 헌혈해 온
청년 안태준 씨

18

—— 변화의 온도 ——

이동약자와 그 친구들을 위한
접근성 지도를 만드는
‘계단뿌셔클럽’

22

—— 일상 속 살맛나는 세상 ——

23

—— 살친.소 ——

살
맛나는 세상 2026년 7+8월 vol.161

등록일자 1999년 4월 19일 등록 신고번호 서초마00080(격월간 비매품) 발행일 2026년 7월 6일 발행인 겸 편집인 박문희
발행처 경기도 과천시 코오롱로 11 코오롱타워 18층 '살맛나는 세상' 편집실 기획 오수민 구독신청 및 문의 오운문화재단 홈페이지
(good-news.or.kr) 편집 및 디자인 위닷(wedot.co.kr) 인쇄 보명씨앤아이(02-2274-4545) 사진 김태화



24

나의 삶, 나의 보람

궁궐·왕릉 등 국가유산
안내·해설을 이어온
‘한국의재발견’

28

배움과 나눔 사이

30년간 장수 사진 촬영
봉사해온 박희진 씨

32

봉사로 피워낸 희망

노래로 희망을 전하는
이소담 씨

36

다시 빛나는 인생

퇴직 후 제빵 봉사하는
최계호 씨

40

다정한 행동 도감

폭염과 폭우 속에서
더욱 뜨거웠던 용기

42

#2030

#SNS인증이벤트

44

삶을 비추는 문화

문화로 채우는
청량한 여름

46

코오롱 사회공헌 Insight

50

빨간 우체통

사진: 사람이 서버 장비 앞에서 손가락으로 홀로그램 형태의 디지털 화면을 터치하고 있다.

기술의 시대 속
사람의
온도를 지키다

주체적인 삶을 향한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선택 앞에 섭니다.
누군가 정해준 길을 따르는 일이 편할 때도 있고,
가장 빠르고 안전한 답을 고르는 것이 현명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때때로 멈춰 서서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무엇이 지금의 나에게 필요한 선택인가.
이 선택은 내 삶에 어떤 의미로 남을 것인가.

AI는 입력된 명령에 따라 답을 찾아내지만,
사람은 흔들리는 마음속에서도,
불확실한 내일 앞에서도 자기 걸음을 내딛습니다.

AI는 명령에 반응하지만, 사람은 스스로 선택합니다.
AI는 주어진 답을 따르지만, 사람은 방향을 정합니다.
기술의 시대, 사람의 온도를 지키는 네 번째 가치는 의지입니다.

정해진 답을 따르는 대신 스스로 방향을 선택하는 힘.
그 힘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앞으로 움직이게 합니다.

사진: 흰 원피스와 모자를 쓴 사람이 풀밭 사이로 난 좁은 흙길을
따라 숲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

내면의 힘

의지

AI는 입력된 명령에 따라 가장 적절한 답을 찾아냅니다. 그러나 인간은 정해진 답 앞에서도 다시 묻고, 때로는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효율보다 의미를, 예측보다 신념을 따르는 힘. 스스로 이유를 세우고 그 결과를 감당하려는 내면의 힘이야말로 인간을 주체적인 존재로 만듭니다. 명령에 반응하는 AI와 스스로 선택하는 인간, 그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될까요?

알고리즘을 넘어, 스스로 선택하는 인간의 힘

A conceptual illustration featuring a white paper boat floating on a vibrant, multi-colored beam of light that resembles a rainbow. The beam originates from a rectangular opening in the upper right corner and extends diagonally across the frame. The background is a soft, hazy blue with numerous small, twinkling white stars, creating a dreamlike and ethereal atmosphere. The overall composition suggests a journey or a path towards a distant, hopeful destination.

삽화: 직사각형의 문에서 별이 수놓아진 무지갯빛
길이 쏟아져 나오고, 하얀 종이배가 그 빛의 길 위를
따라 나아가고 있다.

정호훈 디지털융복합 전문가

빅데이터 분석 기반의 마케팅 전략 및 디지털전환(DX) 컨설팅사 '퍼스펙티브스'를 운영하고 있다. 대림대학교 경영학 겸임교수, 채용 전문 면접관 등의 경력에서 얻은 폭넓은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AI, 경영, 문화, 심리학에 이르는 다양한 주제의 칼럼을 기고하고 있다.

명령에 반응하는 기계와 스스로 선택하는 인간

과거의 결정론적 알고리즘에서 확률적 모델로 진화한 인공지능(AI)은 이제 단순한 통제를 넘어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생성의 단계로 진입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기술이 정교해질수록 우리는 AI가 따라올 수 없는 인간 고유의 판단과 선택, 즉 인간성에 더욱 주목하게 됩니다.

현대 AI의 모든 행동은 본질적으로 예측 가능한 통계적 경계 안에서 움직입니다. 아무리 파격적인 문장을 생성하더라도 결국 주어진 데이터와 알고리즘의 법칙을 따르는 명령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기계는 스스로 자신의 알고리즘을 부정하거나 설계된 목적 함수를 벗어날 수 없으며, 수조 개의 매개변수가 계산하는 정교한 예측 메커니즘 안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반면 인간의 뇌는 의사결정을 내릴 때 모든 변수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경험과 직관, 감정과 기억이 함께 작용하고, 때로는 논리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판단을 내리기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불완전한 선택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인간의 주체적인 의지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계산상 가장 유리한 길이 아니더라도 자신이 옳다고 믿는 길을 택하고, 그 선택에 스스로 이유를 부여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명령에 반응하는 기계와 스스로 선택하는 인간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사진: 사람이 노트북 키보드에 손을 올리고 있으며, 화면 앞에는 'AI'라고 쓰인 글자와 회로 모양의 그래픽, 빨간색 경고 표시가 홀로그램처럼 떠 있다.

메타 인지와 환경을 바꾸는 자유 의지

AI는 자신이 내린 결론이 데이터 오류가 있거나 할루시네이션(Hallucination)¹⁾을 통해 도출될지언정 그 시스템 자체를 스스로 성찰하여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오직 입력된 조건과 확률에 따라 다음 단어 나 결과물을 출력할 뿐이죠. 스스로의 논리적 모순을 자각하거나 시스템의 근본적인 한계에 의문을 품고 스스로를 수정하는 주체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내 생각을 한 걸음 물러서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고도의 '메타 인지' 능력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인간은 스스로의 논리적 모순을 깨닫고, 때로는 대세를 거스르는 완전히 새로운 방향의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이는 과거의 축적된 데이터만으로는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인간만의 독특한 정신 활동입니다.

1) 할루시네이션: AI가 사실과 다른 정보나 존재하지 않는 내용을 실제처럼 그럴듯하게 생성하는 현상

가령 “이 길이 통계적으로 가장 합리적이라는 것을 알지만, 나는 나만의 이유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선언은 단순한 시스템 에러가 아닙니다. 이는 주어진 환경에 맹목적으로 순응하기를 거부하고, 스스로 삶의 방향을 선택하려는 자유의지의 생생한 발현입니다. 인간은 주어진 답을 따르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삶의 이유와 의미를 세워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길이 통계적으로 가장 합리적이라는 것을 알지만, 나는 나만의 이유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선언은 단순한 시스템 에러가 아닙니다. 이는 주어진 환경에 맹목적으로 순응하기를 거부하고, 스스로 삶의 방향을 선택하려는 자유의지의 생생한 발현입니다.

‘포기증’ 연구가 보여주는 ‘의지’의 생명력

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영국 포츠머스 대학교의 존 리치 박사가 진행한 포기증(Give-up-itis) 연구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는 극한 상황에서 인간이 삶의 의지를 잃을 때, 단순한 심리적 위축을 넘어 신경학적 쇠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포기증은 심한 충격 이후 고립과 무기력, 무감동이 깊어지며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일 힘을 잃어가는 과정으로 정리됩니다. 이는 의지가 단순한 정신력의 문제가 아니라, 삶을 지속하게 하는 중요한 동력임을 보여줍니다.

AI가 인간의 노동과 사고를 빠르게 대체하는 지금, 삶의 방향을 설정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힘은 결국 인간의 내면적 의지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기술은 효율을 높이고 눈앞의 과제를 해결할 수 있

사진: 배낭을 멘 사람이 높은 바위 절벽에 앉아 햇빛 아래 펼쳐진 산과 도시 풍경을 바라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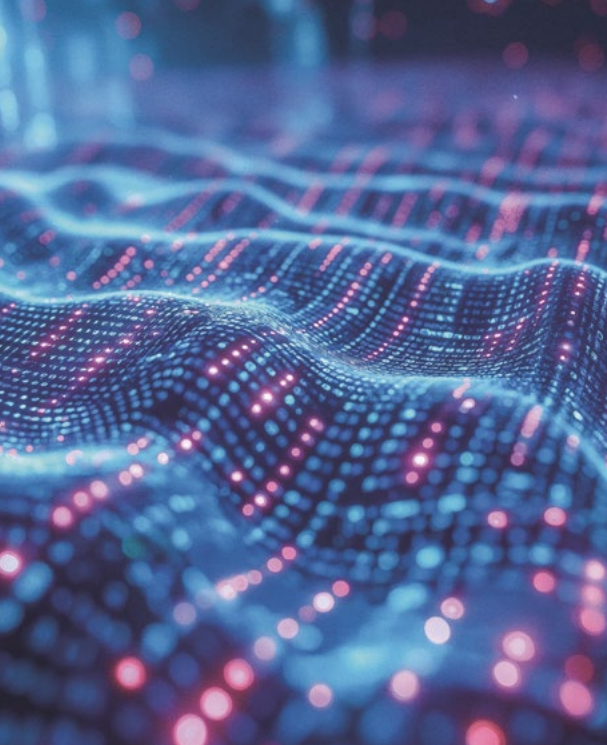


사진: 파란색과 분홍색 점들이 물결처럼 이어져 데이터 흐름을 표현하고 있다.

지만, '왜 이 일을 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답하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할 의지를 잃는다면 기술은 삶을 돕는 도구가 아니라 무력감을 키우는 장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의지가 살아 있을 때, 기술은 인간의 삶을 대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넓게 확장하는 도구가 됩니다.

의도와 맥락이 만드는 창의성과 인간의 존엄

우리가 예술과 인문학에 감동하며 인간의 권위를 보존하는 이유는 단순히 결과물이 수학적으로 완벽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AI가 황금 비율로 그린 그림보다, 작가의 고뇌와 비논리적인 감정이 투박하게 섞인 작품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하는 이유는 인간이 작품 이면에 흐르는 삶의 맥락과 그 일을 기어코 해내겠다는 창작자의 의도를 읽어내기 때문입니다.

AI의 창의성은 기존 데이터의 조합과 변주에서 나오는 계산된 결과물입니다. 반면 인간의 창의성은 개인이 삶에서 직접 부딪치며 겪은 고통, 결핍, 사랑, 사회적 분노와 같은 실존적 경험과 이를 극복하려는 '의지'에서 피어납니다. 판단의 정확도가 아니라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가에서 진정한 권위가 나오듯,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없는 AI는 결코 의사결정의 주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스템이 예측한 방향을 이탈하여 나만의 닻을 내리는 용기를 통해 주체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AI가 제시하는 최적화된 합리성의 길은 편리하고 빠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효율적인 길이 곧 나의 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은 불확실한 선택 앞에서도 스스로 이유를 묻고, 그 결과를 감당하며, 다시 다음 걸음을 내딛습니다. 명령에 반응하는 기계와 달리, 인간은 자기 삶의 방향을 선택합니다. 그 선택을 포기하지 않게 하는 내면의 힘, 그것이 AI 시대에도 인간의 존엄을 지키고 삶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근원일 것입니다. ☺



사진: 작은 보트 위에 선 사람이 닻을 바다 위로 던지고 있다.

손끝으로 이어온 길

제21회 우정선행상 본상 수상 단체 '조용한 수다'



조용한 수다 인터뷰
영상 보러가기



사진: 공원에서 조용한 수다 단원들이 부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캐릭터 몽아와 함께 밝은 표정으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누군가에게 수어는 꼭 필요한 언어이고, 세상을 새롭게 만나는 문이 된다. 조용한 수다는 그 문이 더 많은 사람에게 열리기를 바랐다. 거리 공연으로 수어를 알리고, 시민들이 직접 수어를 익히는 자리를 마련해 온 조용한 수다는 이제 부산의 한 마을에 스며들었다. 그곳에서 장애예술인들의 창작을 돕고, 수어와 문화예술이 마을의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는 시간을 만들어가고 있다.



사진: 야외 공연 무대에서 조용한 수다 단원이 수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소리 없는 언어, 예술이 되다

조용한 수다는 2013년 김석휘 단장을 중심으로 여덟 명의 춤꾼과 노래꾼이 뜻을 모아 만든 수어 퍼포먼스 공연단이다. 처음에는 대중가요에 수어를 더한 공연으로 시작했고, 이후 수어 퍼포먼스와 수어 뮤지컬로 영역을 넓혔다. 부산역과 서면, 해운대와 광안리의 거리 위에서 수어는 노래가 되고 이야기가 되었다. 낯선 몸짓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잇는 언어가 되기 시작했다.



사진: 주말 수어-점자 교실에서 조용한 수다가 어린이들과 학부모들에게 수어를 가르치고 있다.

일상으로 번진 수어

수어를 알리는 일은 공연장 밖에서도 이어졌다. 조용한 수다는 2014년부터 주말 수어-점자 교실을 열었고, 2017년부터는 S.O.S 프로그램을 통해 경찰서, 지구대, 소방서, 병원 등의 현장 담당자에게 기초 수어를 알려왔다. 2018년에는 홀몸 어르신들과 청춘 합창단을 꾸려 지금까지 노래를 수어로 표현하는 법을 나누고 있다. 수어는 누군가의 안전과 배움, 외로운 하루를 살피며 일상에 젖어 들었다.



사진: 코로나19로 인해 2021년 제21회 우정선행상 시상식은 '찾아가는 시상식'으로 진행되었다.



큰 힘이 되어준
우정선행상

2021년 제21회 우정선행상 본상 수상은 조용한 수다에게 그동안의 노력을 인정받는 일이었다. 수어 공연이 낯설던 시절, 그들은 연습실 없이 공원과 놀이터에서 동작을 맞추고, 거리 공연 중 신고를 받아 자리를 옮기기도 했다. 낯선 시선 속에서도 이어온 활동이 비로소 필요한 일로 인정받은 순간, 우정선행상은 단원들에게 다시 앞으로 나아갈 힘을 안겨주었다.

문화예술로 마을을 되살리는 일

수상 이후 조용한 수다에는 새로운 제안이 찾아왔다. 부산 중구 영주동 도시재생 사업의 마지막 단계에서, 새 복합공간을 어떻게 채워갈지 고민하던 부산시와 중구청이 손을 내민 것이다. 조용한 수다는 그동안 이어온 공연과 교육, 장애예술 활동을 이곳에 연결해 보기로 했다. 낙후된 지역도 문화예술을 통해 사람이 오가고 머무는 마을이 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조용한 수다 김석희 단장은 2023년 9월, '수다마을관리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승인을 받고 활동 영역을 확장해 나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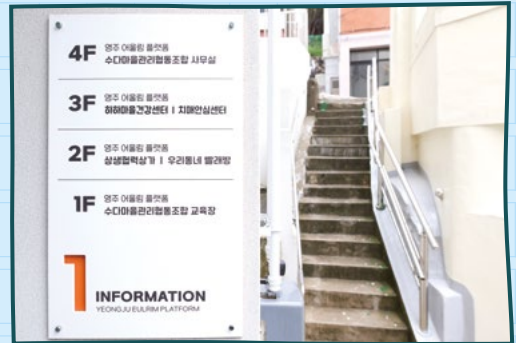


사진: 조용한 수다가 맡아서 운영하고 있는 영주 어울림 플랫폼



2013년

조용한 수다 창단,
수어 퍼포먼스 공연 시작

2014년

주말 수어·점자 교실
운영 시작

2017년

S.O.S 프로그램
시작



2018년

청춘 합창단
운영 시작

누구나 예술가가 될 수 있도록

2024년부터 운영을 맡은 부산광역시 중구 영주동 '영주 어울림 플랫폼'에는 조용한 수다가 이어온 활동들이 하나둘 모였다. 수어 교육과 공연 연습이 이뤄지고, 공간이 필요한 청년 예술인들도 이곳을 함께 쓴다. 이 공간을 바탕으로 시작한 '누누 프로젝트'는 누구나, 누구라도, 누구든지 문화예술을 진정성 있게 할 수 있도록 돕는 장애예술인 육성 지원 활동이다. 조용한 수다는 시각장애인 바이올리니스트, 지체장애인 드럼 연주자, 청각장애인 작사가와 협업했고, 수어 아티스트 양성 프로젝트도 이어가고 있다.



사진: 누누 프로젝트의 아티스트들이 노래 공연을 하고 있다.



사진: 행사장에서 조용한 수다와 관람객들이 하나가 되어 수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예술이 모두의 것이 되는 날까지

조용한 수다의 무대는 거리에서 마을로, 공연에서 교육과 창작의 영역으로 넓어졌다. 그사이 많은 것이 달라졌지만, 수어를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싶다는 마음은 그대로다. 김석희 단장을 포함한 일곱 명의 핵심 멤버는 각자의 삶을 꾸리면서도 공연과 교육 현장으로 다시 모인다. 수어가 더 많은 사람의 언어가 되고, 장애예술이 모두가 함께 누리는 예술로 자리 잡는 날까지. 조용한 수다의 손짓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



2021년

제21회 우정선행상
본상 수상



2024년

영주 어울림 플랫폼
운영 시작

2026년 현재

수어 공연, 수어 교육, 장애예술인
육성, 지역 문화예술 활동 지속

뜨겁게 나누는 조용한 기적

18년간 200회 넘게 헌혈해 온 청년 안태준 씨



사진: 안태준 씨가 헌혈증서를 들고 밝게 웃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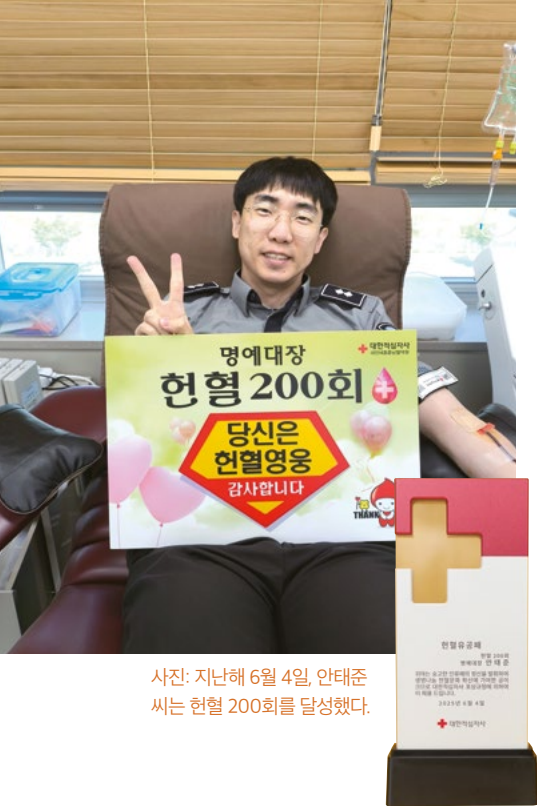


사진: 지난해 6월 4일, 안태준 씨는 헌혈 200회를 달성했다.

사진: 안태준 씨가 헌혈 200회를 달성하며 받은 대한적십자사 헌혈유공패.

한 시간씩 쌓아온 200회의 기록

헌혈의집 세종센터에 도착했을 때, 안태준 씨는 왼팔에 바늘을 꽂은 채 책을 읽고 있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 동안 그는 주로 책을 읽으며 가능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려고 한다. 이 시간에 갖는 긍정적인 감정이나 마음 상태까지도 헌혈의 일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안태준 씨가 처음 헌혈을 한 것은 2008년 고등학교 재학 시절, 단체 헌혈에 참여한 것이 시작이었다. 처음에는 헌혈 후 받는 영화표와 간식이 반가워 습관처럼 이어갔지만, 성인이 된 뒤 생각이 달라졌다. 자신의 몸에서 나온 혈액으로 절박한 상황에 처한 누군가를 도울 수 있고, 환자 수혈과 의약품 제조 등 생명을 살리는 일에 일조할 수 있다는 사실에 더 적극적으로 헌혈을 지속하게 되었다. 그렇게 조금씩, 천천히 헌혈 마니아가 되었다. 충남 공주시에 있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백업센터에서 청원경찰로 일하고 있는 그는 주로 직장 근처에서 헌혈한다. 헌혈을 계속하기 위해 금연과 금주를 실천하고, 철분 영양제와 건강한 음식을 챙기며 자기관리도 이어가고 있다. 여행을 가면 그 지역 헌혈의집을 방문해 원정 헌혈을 하기도

한 사람이 조용히 내어준 시간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하루를 이어갈 힘이 된다.

안태준(36) 씨는 고등학생 시절 처음 참여한 헌혈을 18년간 이어오며 200회가 넘는 기록을 쌓았다. 특별한 말보다 꾸준한 실천으로, 그는 자신이 가진 가장 분명한 온기를 이름 모를 누군가에게 건네고 있다.



사진: 안태준 씨가 헌혈을 이어오며 받은 포장증들.



사진: 안태준 씨가 헌혈의집 세종센터에서 헌혈을 하고 있다.



사진: (위) 안태준 씨(맨 오른쪽)는 헌혈뿐 아니라 세종시민경찰 활동에도 참여하며 지역 안전을 위한 나눔을 이어가고 있다.
(아래) 세이브러칠드런 국제어린이마라톤에 자원활동가로 참여하기도 했다.

인간이 나눌 수 있는 것 중 대체 불가능한 것이 바로 혈액이다. 자신의 혈액을 아낌없이 나눠 누군가에게 희망을, 내일을 선사하고 있는 안태준 씨. 그의 뜨거운 나눔은 오늘도 조용히 이어지고 있다.

한다는 그는 봉사과 일상의 경계를 넘나드는 헌혈 베테랑다운 기지도 발휘한다. 이렇게 한 회 한 회, 헌혈 횟수가 쌓여 지난 2025년 6월 4일 헌혈 200회를 달성했고, 대한적십자사로부터 헌혈유공패 명예대장을 수여받았다. 전혈헌혈은 2개월, 성분헌혈은 2주 간격으로 가능하기에 18년 동안 꾸준히 하지 않으면 도달하기 어려운 수치다.

헌혈을 계속 이어가는 이유

다회 헌혈자가 된다는 것은 일상에서 자기관리가 철저하다는 뜻이다. 건강관리는 물론 해외여행, 말라리아 관련 헌혈 제한 지역 방문 여부 등 평소 챙겨야 할 것들이 있기



사진: 안태준 씨(가운데)가 대전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견 돌봄 봉사를 하고 있다.

때문이다. 온라인 문진과 혈액 검사 등 사전검사에서도 이상소견이 발견되지 않아야 한다. 안태준 씨의 경우 다년간 헌혈을 이어오며 자신이 행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고, 봉사가 필요한 곳에도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되었다. 헌혈뿐만 아니라 환경정화 활동과 유기견 돌봄 봉사를 꾸준히 이어오면서, 자신이 사회로부터 받은 것을 조금이나마 돌려줄 수 있다는 점에도 보람을 느끼고 있다. 인간이 나눌 수 있는 것 중 대체 불가한 것이 바로 혈액이다. 자신의 혈액을 아낌없이 나눠 누군가에게 희망을, 내일을 선사하고 있는 안태준 씨. 그의 뜨거운 나눔은 오늘도 조용히 이어지고 있다.

Q. 처음 헌혈했을 때와 지금, 헌혈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했나요?

햇수가 더해 갈수록 책임감과 의무감이 커지는 것 같아요. 국가 차원에서 혈액을 수입하면서 생기는 경제적 비용, 코로나 19 같은 비상사태에 수혈을 받지 못해 하루하루 불안 속에서 보내야 하는 분들을 보면서 안정적인 헌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Q. 앞으로의 바람이 있다면요?

사실 헌혈은 제가 하고 싶다고 계속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들어서도 헌혈을 할 수 있다는 건 그만큼 건강관리가 잘 되었다는 뜻이고, 복용하는 약도 없어야 해서 운도 따라줘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앞으로 10년 동안 더 헌혈할 수 있는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 싶습니다.

Q. 헌혈을 아직 어렵게 느끼는 사람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헌혈은 개인이 할 수 있는 가장 헌신적인 사회참여라고 생각해요. 제 혈액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데 쓰였다고 생각하면 큰 보람을 느낍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헌혈을 어렵거나 특별한 일로만 여기지 않고, 건강한 사회를 함께 만드는 자연스러운 문화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

청년 헌혈왕 안태준 씨와의 미니인터뷰

사진: 손 하트를 만들고 있는
안태준 씨와 그동안 그가 모아온
헌혈증서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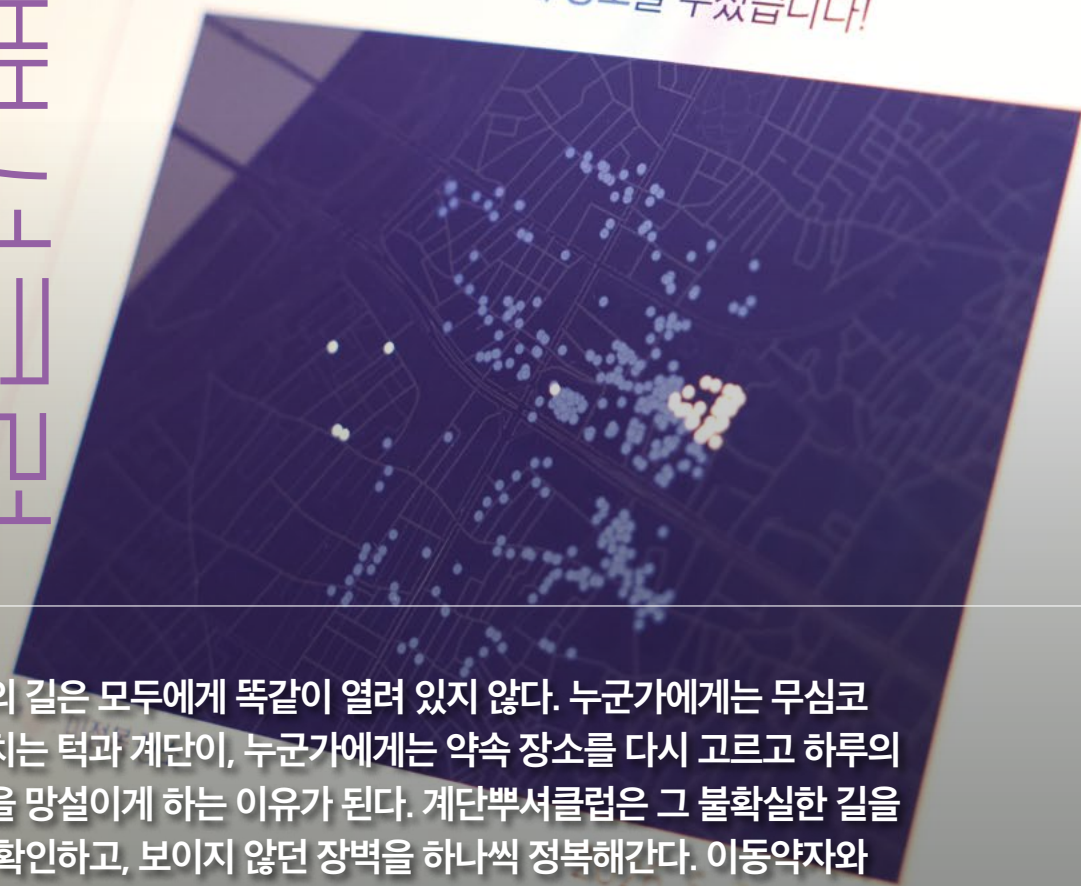
(Mini Interview)

사진: 계단뿌셔클럽 활동 결과 화면에 천호역 일대에서 확인한 장소들이 지도 위의 점으로 표시되어 있다.

계단뿌셔클럽

오늘의 정복활동

5월 31일 일요일 천호역에서는
23명의 크러셔가 힘을 모아
총 463개 장소를 뿌셨습니다!



도시의 길은 모두에게 똑같이 열려 있지 않다. 누군가에게는 무심코 지나치는 턱과 계단, 누군가에게는 약속 장소를 다시 고르고 하루의 외출을 망설이게 하는 이유가 된다. 계단뿌셔클럽은 그 불확실한 길을 함께 확인하고, 보이지 않던 장벽을 하나씩 정복해간다. 이동약자와 그 친구들이 더 많은 곳에 닿을 수 있도록, 도시 곳곳의 높낮이를 읽고 기록하는 사람들이다.



사진: 계단뿌셔클럽을 함께 이끌고 있는 이대호 씨와 박수빈 씨.

우정으로 모이고, 기술로 넓히는 길

이동약자와 그 친구들을 위한 접근성 지도를
만드는 ‘계단뿌셔클럽’



일상의 불편에서 시작된 질문

약속 장소를 고르는 일은 대개 취향에서 시작된다. 분위기, 이동 거리, 예산 등 다양한 요소를 살피며 많은 선택지 가운데 마음이 가는 곳을 고른다. 그러나 이동약자의 경우는 다르다. 출입구 앞 턱은 없는지, 계단은 몇 칸인지, 경사로나 엘리베이터가 있는지 알 수 없으면 가고 싶은 마음보다 갈 수 있을지부터 따져야 한다. 계단뿌셔클럽의 공동대표인 박수빈(37) 씨에게도 이는 일상에서 마주하는 익숙한 불편함이었다.

“저는 맛집이나 분위기 있는 곳을 좋아해요. 그런데 휠체어를 이용하다 보니 장소를 고를 때 마음이 가는 곳보다 실제로 갈 수 있는 곳을 찾게 되거든요. 이게 저만의 문제도 아니었어요. 같이 밥을 먹거

나 약속을 잡는 동료와 친구들도 결국 저와 함께 갈 수 있는 곳을 찾아야 했죠. 그런데 그런 정보는 일반적인 지도 서비스나 검색만으로는 찾기 어려울 때가 많았어요.”

당시 박수빈 씨와 이대호(36) 씨는 모빌리티 서비스를 만드는 IT 기업에서 함께 일하고 있었다. 이동을 더 편리하게 만드는 일을 하면서도, 정작 일상 속 장소의 접근성 정보는 지도에 충분히 남아 있지 않다는 점을 인지하게 되었다. 사람들이 직접 확인한 정보를 모아 누구나 볼 수 있는 지도 위에 쌓아갈 수 있다면 어떨까. 그 문제의식에서 2021년, 이동약자와 그 친구들을 위한 접근성 지도를 만드는 프로젝트 ‘계단뿌셔클럽’이 시작됐고, 두 사람은 현재 공동대표로 활동을 이끌고 있다.

지도 위에 쌓이는 정복의 기록

계단뿌셔클럽은 접근성 정보를 모으는 활동을 ‘정복활동’이라고 부른다. 활동이 열리는 날이면 정복 크루와 게스트가 짝을 이뤄 지하철역 주변에 흠웃인다. 손에는 스마트폰을 들고, 식당과 카페, 편의점, 병원, 약국의 입구를 하나씩 살핀다. 입구에 턱이 있는지, 계단은 몇 칸인지, 경사로는 놓여 있는지, 매장이 어느 층에 있는지 확인한 뒤 사진과 함께 앱에 등록한다. 누군가에게는 지나치기 쉬운 정보지만, 누군가에게는 외출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정보들이다. 이렇게 쌓인 기록은 계단뿌셔클럽 앱에서 접근 레벨과 색상 핀으로 표시된다. 계단이 없는 곳, 경사도가 있는 곳, 계단 한두 칸이 있는 곳, 다섯 칸 이상이거나 엘리베이터 없는 고층까지 나뉘어 있어 이용자는 장소의 컨디션을 파악할 수 있다. 이동약자 당사자가 직접 남긴 방문 리뷰도 함께 제공된다. 지금까지 계단뿌셔클럽이 ‘정복’한 장소는 약 12만 3천 개, 앱 가입자는 약 1만 1천 명에 이른다. 중복을 제외한 누적 크루도 약 3천 4백 명이다.

“저희는 이 활동을 봉사활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도움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나뉘는 것이 아니라, 이동약자와 비이동약자가 각자의 강점을 나눠 팀플레이를 하는 일에 가깝거든요. 이동약자는 접근성에 대한 감각이 있고, 비이동약자는 더 많이 움직일 수 있는 기동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정복활동이라는 말을 씁니다. 친구와 시간을 보내듯, 작은 팀 스포츠를 하듯 참여할 수 있는 경험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선택할 수 있는 도시를 향해

계단뿌셔클럽이 만드는 지도는 완벽한 무장애 장소만 골라내는 것이 아니다. 이동약자라고 해도 모두 같은 방식으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수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과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유아차를 미는 부모, 임산부, 고령자, 일시적으로 다리를 다친 사람에게 필요한 정보는 저마다 다르다. 누군가에게는 한 칸의 계단도 어렵지만, 누군가에게는 꼭 가고 싶은 장소라면 한두 칸의 계단을 감수할 수도 있다. 그래서 계단뿌셔클럽은 갈 수 있거나 없다고 대신 판단하기보다, 스스로 선택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정보를 남기는 일에 집중한다.

이 지도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있어야 채워진다. 누군가 직접 거리를 걷고, 입구를 살피고, 사진을 찍어 정보를 등록해야만 새로운 장소의 정보가 쌓인다. 그래서 계단뿌셔클럽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과제도 참여자를 꾸준히 모으는 일이다. 활동은 정기후원과 기부금을 기반으로 이어가고 있지만, 작은 조직이 참여자와 운영 기반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일은 쉽지 않다. 기업·단체와의 협업은 활동을 지속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다. 함께 정복활동을 진행하며 참여자를 만나고, 접근성 정보가 왜 필요한지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린다.

앞으로는 서울을 넘어 지역 파트너를 찾고, 여행과 숙소, 공연과 축제처럼 접근성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영역으로도 활동을 넓혀가려 한다. 누군가 직접 확인해 남긴 정보는 또 다른 누군가의 외출을 가능하게 한다. 계단뿌셔클럽은 오늘도 누군가의 선택지를 하나씩 넓혀가고 있다. ☺



사진: 계단부서클럽은 '크러셔 데이'를 열고 이동약자와 그 친구들의 막힘없는 이동을 위한 정복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저희는 이 활동을
봉사활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도움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동약자와
비이동약자가 각자의 강점을
나눠 팀플레이를 하는 일에
가깝거든요.”

사진: 정복활동에 참여한 크루들이 장소의 접근성 정보를 확인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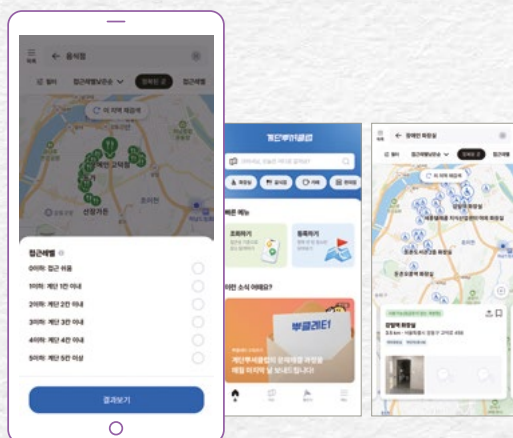


사진: 계단부서클럽 앱 화면. 이용자는 지도 위에서 장소별 접근 레벨과 사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사진: 제21회 우정선행상 분상 수상단체 사단법인 온기와 함께한 '품앗이 데이'에서 온기우체부들은 정복활동에 함께하고, 계단부서클럽 크루들은 온기우체부가 되어 손편지를 썼다.



여러분이 일상 속에서 만난 《살맛나는 세상》 책자 또는
《살맛나는 세상》 책자가 있었으면 하는 장소를 직접 촬영하여
짧은 메시지와 함께 보내주세요.

*직접 촬영하신 사진만 보내주세요. 타인의 사진 사용 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6월호 참여작

Eunjeong



무척이나 날이 맑고 청량한 5월,
기온도 차츰차츰 올라 여름이 성큼
다가오는 요즘, 이렇게 좋은 날
《살맛나는 세상》 들고 공원 가는 길.
어떤 이야기가 담겨있을까 호기심과
기분 좋은 마음을 가지고 야외에서
한 장 한 장 넘겨봅니다.

+

오윤우



벌써 8년째 《살맛나는 세상》을
구독하고 있습니다. 뉴스나 인터넷을
보면 세상이 각박해져 간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살맛나는 세상》을
읽을 때만큼은 마음이 따뜻해져요.
누군가를 위해 마음을 나누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는 걸
느끼게 되니까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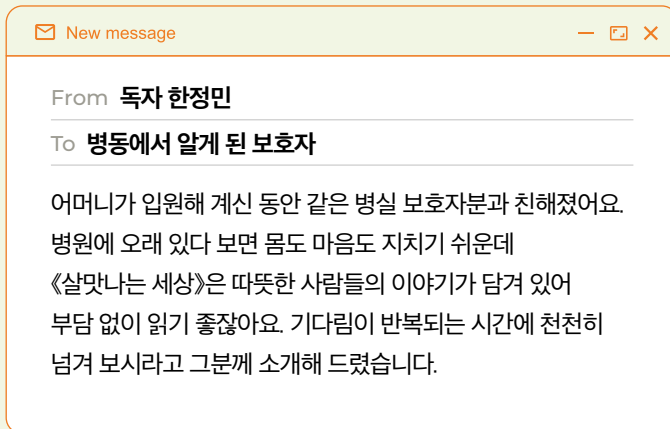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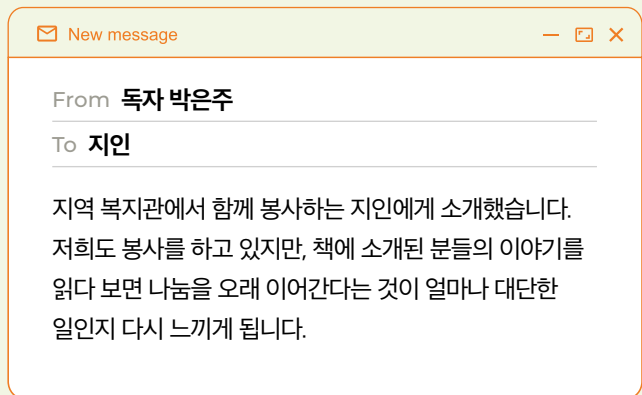
참여 방법 '살맛나는 세상' 카카오톡 채널 접속(좌측 QR코드 스캔) 후 '채팅하기(●)'
(채팅 가능 시간: 평일 9:00~18:00)

참여 기한 2026년 8월 10일 월요일

* 선정되신 분들의 사진 및 메시지는 책자에 소개되며, 커피 기프티콘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살맛나는 세상’을 친구에게 소개합니다!

숨겨진 선행·미담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널리 알려 세상을 보다 살맛 나게 만들기 위해 탄생한 책자, 《살맛나는 세상》! 더 많은 분들에게 그 따뜻한 의미를 전하고자 독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살맛나는 세상》을 주변에 소개해 주시거나, 소개를 받으신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살맛나는 세상》
구독 신청하기



말없이 서 있는 궁궐과 왕릉에도 저마다 품은 이야기가 있다. 전각의 이름과 지붕의 곡선, 담장 너머로 이어지는 길에는 그 시간을 살았던 사람들의 삶과 마음이 남아 있다. ‘한국의재발견’은 그 조용한 이야기를 오래 살피고 공부해 전해온 단체다. 1999년 우리궁궐지킴이 활동을 시작한 뒤, 국가유산을 더 가깝고 깊게 만나는 길을 열어 가고 있다.

오늘의 목소리로 전하는 아주 오래된 이야기

궁궐·왕릉 등 국가유산
안내·해설을 이어온
‘한국의재발견’



사진: 김혜경 해설사가 어린이 관람객의 눈높이에 맞춰
오래된 이야기들을 쉽고 친근하게 들려주고 있다.

시민의 힘으로 시작된 (궁궐 해설)

국가유산은 오래된 건축물이나 유물로만 남아 있으면 시민과 멀어진다. 눈앞에 있어도 그 의미를 알지 못한다면, 전각은 이름만 어려운 건물로 남고 돌길은 그저 지나가는 길이 되기 쉽다. 한국의재발견의 시작도 그 거리감을 좁히려는 마음에서 비롯됐다. 1998년 7월 24일, ‘누리앓’, ‘신들매’, ‘경실련 문화역사기행’ 등 정통 답사 단체들이 뜻을 모아 ‘겨레문화답사연합’을 결성했고, 이듬해인 1999년 9월 ‘우리궁궐지킴이’ 자원봉사활동을 시작했다.

당시 4대 궁궐과 종묘를 찾는 관람객은 한 해 천만 명을 넘었지만, 창덕궁을 제외하면 안내·해설을 듣기 어려웠다. 그 빈자리에 시민들이 봉사자로 나섰다. 먼저 배우고, 오래 살피고, 자신이 느낀 감동을 다시 시민에게 돌려주려는 사람들이었다. 2002년에는 시민이 활동과 운영의 주체가 되는 단체로 거듭나고자 한국의재발견으로 이름을 바꾸었고, 2004년 문화재청에 사단법인으로 등록했다. 같은 해 제1회 대한민국 문화유산상 봉사·활용 부문 대통령상을 수상하며 활동의 가치를 인정받았다.



봉사 기간
1999년 9월부터
27년

활동 인원
해설 봉사자
598명

봉사 장소
궁궐·왕릉 등
11곳



사진: 해설 봉사자들이 한국의재발견 교육장 특별강좌를 들으며 현장 해설에 필요한 지식을 쌓고 있다.



사진: 이규형 해설 봉사자가 관람객들과 함께 덕수궁 길을 걸으며, 공간에 담긴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내고 있다.

진심으로 배워 (재미있게) 전하는 일



한국의재발견에는 저마다 다른 삶을 살아온 이들이 모인다. 역사와 국가유산을 좋아해 배움을 이어 가는 사람도 있고, 자신의 시간과 경험을 의미 있게 나누고 싶은 사람도 있다. 이들이 해설 봉사자로 서기까지의 과정도 가볍지 않다. 기본 이론교육과 현장 안내·해설 참관, 활동지 수습 교육을 거치고 필기 평가와 활동일지, 해설 시나리오 제출까지 마쳐야 한다. 최종 합격자에게는 우리공필지킴이 민간자격증이 부여된다. 현재 598명의 해설 봉사자가 매주 토요일마다 궁궐과 왕릉, 사직단과 환구단, 성균관, 운현궁 등 각자의 활동지에서 관람객을 만나고 있다. 정규 안내·해설은 별도 예약 없이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들 수 있으며, 단체 해설은 한국의재발견 홈페이지에서 방문 7일 전 예약하여 들 수 있다.

먼저 배우고 느낀 것을 관람객들과 나누고 싶다는 마음, 이들이 오래 품어온 생각도 그래서 ‘공부해서 남 주자’다. 덕수궁에서 만난 해설 봉사자 이규형 씨도 그런 마음으로 현장에 선다. 그는 궁궐과 종묘를 해설 대상으로 삼기 전에 예를 갖춰 마주해야 할 공간으로 여긴다. 그래서 그의 해설에는 지식을 많이 전달하려는 마음보다, 자신이 아끼는 것을

“궁에 오신 분들이 공부하러 오시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려요. 우리 역사를 어렵게 느끼는 분들에게 흥미를 느끼게 해드리는 게 제 중요한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오늘의 관람객이 지키는 (오래된 시간)

조심스레 건네려는 태도가 먼저 묻어난다.

“궁에 오신 분들이 공부하러 오시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놀러 오신 분들에게 어려운 말만 길게 하면 돌아서는 순간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저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려요. 실제 기록과 사실 안에서 일상생활과 연결되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거죠. 우리 역사를 어렵게 느끼는 분들에게 흥미를 느끼게 해드리는 게 제 중요한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그 말처럼 해설은 지식을 과시하는 일이 아니라 국가유산과 사람 사이에 작은 다리를 놓는 일이다. 궁궐을 나서는 누군가가 우리 역사에 대해 조금 더 알고 싶어지는 마음을 얻는 것, 한국의재발견이 오래 지켜온 해설의 힘도 거기에 있다.

궁궐 앞에서 시작된 한국의재발견의 목소리는 시간이 흐르며 더 넓은 국가유산의 자리로 이어졌다. 2005년 왕릉 안내 활동을 시작한 이래 사직단과 환구단, 성균관, 운현궁으로 활동 범위를 넓혔고, 국내 관람객 뿐 아니라 외국인 관람객에게도 국가유산에 담긴 역사와 아름다움을 전해왔다. 또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모니터링, 국가유산 지킴이 활동, 국가유산 교육 활동을 이어왔고, 문화해설사와 교원, 시·청각 장애인 문화유산해설사 양성 교육에도 참여해왔다. 궁궐의 건축물과 주변 환경, 관람 질서를 살피는 일 역시 국가유산을 더 많은 사람이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돕는 봉사의 한 부분이다.

국가유산을 지킨다는 말은 거창하게 들리지만, 그 시작은 단순하다. 한 번 더 바라보는 일, 알고 지나가는 일, 누군가에게 들은 이야기를 다시 전하는 일. 좋아하는 마음으로 시작해 책임감으로 이어온 시간이 있었기에, 한국의재발견의 목소리는 오늘도 궁궐 앞에 선다. 궁궐의 돌길 위에 해설 봉사자의 목소리가 내려앉은 순간, 오래된 길은 다시 살아난다. 📍



사진: 한국의재발견은 청년들이 세계유산의 가치를 배우고 보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청년유네스코 세계유산지킴이 활동에도 함께하고 있다.

사진: 눈이 내린 경복궁에서 관람객들에게 궁궐 해설을 하고 있는 해설 봉사자



사진: 박희진 씨가 빈 액자 프레임 너머로
얼굴을 보이며 환하게 웃고 있다.

얼굴 너머, 한 생을 기록하는 사람





사진: 6·25 참전용사 어르신의 장수 사진 촬영을 앞두고 옷매무새를 정돈하는 박희진 씨

사진을 배우며 사람을 보게 되다

중앙대학교 사진학과에 다니던 대학 4학년 때, 박희진 씨는 서울 천호동과 경기 하남시 경계의 비닐하우스 마을에서 장애를 안고 살아가던 사람들의 일상을 사진으로 기록했다. 그 시간은 그에게 사진이 단순히 장면을 남기는 일이 아니라, 한 사람이 살아가는 자리를 오래 들여다보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사회복지와의 인연도 사진을 찍으러 간 자리에서 시작됐다. 복지관 개관식 촬영을 계기로 현장을 드나들었고, 한국사회복지신문 사진 작업과 장애인 시설 자원봉사를 이어가며 사람들의 삶을 더 가까이에서 보게 됐다. 훗날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를 공부한 것도 그 흐름 안에 있었다. 사진학과에서 배운 기술, 복지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 군 사진병 시절 몸에 밴 정확함은 훗날 장수 사진 봉사 안에서 하나로 만났다.



사진: 박희진 씨는 조명과 카메라 장비를 직접 챙겨 복지관과 요양원, 경로당 등을 찾아가 어르신들의 장수 사진을 촬영해왔다.

30년간 장수 사진 촬영 봉사해온 박희진 씨

사진은 한순간을 붙잡지만, 어떤 사진은 한 사람의 생을 오래 품는다. 박희진(63) 씨는 30년 동안 부산 곳곳의 복지관과 요양원, 경로당을 찾아 어르신들의 장수 사진을 찍어왔다. 제대로 된 사진 한 장 없이 할머니를 보내야 했던 손자의 슬픔은 수만 명의 얼굴을 정성껏 남기는 오랜 약속이 되었다.

사진 한 장 없던 자리에서 시작된 약속

장수 사진 봉사의 시작에는 친할머니에 대한 오래된 마음의 빛이 있다. 경북 군위에서 태어난 그는 초등학교 3학년 때 대구로 전학하기 전까지 할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다. 그런 할머니가 1991년 가을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가족들은 황망하게 장례를 준비했지만, 장례식장에 놓을 제대로 된 사진 한 장이 없었다. 남은 것은 오래된 주민등록증 사진뿐이었다. 사진을 전공한 손자였지만, 정작 가장 가까운 사람의 얼굴을 온전히 남겨둔 사진이 없었다.

“할머니 장례를 치르면서 정말 많이 후회했어요. 사진을 전공한 손자인데, 그렇게 저를 예뻐해 주신 할머니 사진 한 장 제대로 찍어드리지 못했으니까요. 그때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교수가 되고 안정된 직장을 갖게 되면,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께 장수 사진을 찍어드려야겠다고요. 할머니께 못 해드린 일을 다른 어르신들께라도 해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약속은 오래 미뤄지지 않았다. 1996년 3월 26일, 부산보건대학교의 전신인 동주대학교 광고사진과 신설 교



사진: 박희진 씨가 인화한 장수 사진을 확인하며 액자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할머니 장례를 치르면서 정말 많이 후회했어요. 안정된 직장을 갖게 되면,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께 장수 사진을 찍어드려야겠다고요. 할머니께 못 해드린 일을 다른 어르신들께라도 해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사진: 촬영한 장수 사진을 직접 보정하고 있는 박희진 씨





사진: 박희진 씨가 촬영 전 어르신이 편안한 모습으로 촬영할 수 있도록 살피고 있다.



사진: 적게는 수십 명에서 많게는 400명에 이르는 어르신들을 하루에 촬영하기도 한다.

수로 임용된 그는 첫 월급을 받은 다음 날 다대중 합사회복지관을 찾아갔다. 무거운 조명 장비와 중형 카메라를 혼자 옮겨 복지관 옆 천막 아래에 세웠다. 한 분씩 사진을 찍어드린 후 사진만 건네면 정작 필요할 때 찾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액자까지 준비했고, 완성된 사진을 직접 전하는 원칙도 그때 만들었다.

그 사람답게 찍고, 끝까지 전하는 일

처음 몇 해 동안 그는 복지관과 동사무소(지금의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찾아다니며 촬영을 제안했다. 시간이 지나자 소문이 나고, 이제는 부산 곳곳에서 먼저 연락이 온다. 복지관과 요양원, 경로당, 마을회관이 그의 촬영장이 된다. 해마다 약 천 명의 어르신을 촬영해 왔고, 코로나19로 멈춘 시기를 제외해도 그가 사진으로 만난 어르신은 3만 명에 가까워졌다. 그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잘 꾸민 얼굴이 아니라 그 사람다운 얼굴이다. 모자를 쓰고 온 사람은 모

자를 쓴 채로, 운동복 차림이 익숙한 사람은 그 모습 그대로 남긴다. 검버섯과 주름도 지나치게 지우지 않는다.

“저는 너무 인위적으로 만들고 싶지 않아요. 모자를 쓰고 오셨으면 그 모습이 그분답고, 운동복을 입고 오셨으면 그 안에 그분의 생활이 있는 거예요. 주름이나 검버섯은 조금 정리할 수 있지만, 살아오신 얼굴 자체를 바꾸고 싶지는 않습니다. 훗날 장례식장에서 그 사진을 봤을 때, 내가 알던 그 사람이 맞다고 느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촬영이 끝나도 그의 일은 계속된다. 사진을 고르고, 보정하고, 인화한 뒤 액자에 끼워 완성하기까지 모두 그의 몫이다. 액자와 인화 비용도 해마다 올라 비용 부담도 적지 않다. 시간과 비용의 무게가 쌓이다 보니 10년, 20년, 30년이 지날 때마다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기도 한다. 정년퇴직을 앞둔 지금도 이 일을 언제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 스스로 묻고 있다. 그럼에도 그가 쉽게 놓지 못하는 것은, 자신이 남긴 사진 한 장이 언젠가 한 사람을 기억하는 자리에 놓인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⑥

사진: 이소담 씨가 나무 그늘 아래 앉아 기타를
치며 환하게 웃고 있다.

행복의 멜로디, 삶을 노래하다

노래로 희망을 전하는 이소담 씨

행복을 노래



사진: 이소담 씨에게 공연 봉사는 노래로 마음을 나누고, 자신이 받은 위로를 다시 세상에 돌려주는 시간이다.



사진: 천사노래예술단 단원들과 함께 요양원 공연 봉사에 참여한 이소담 씨 (왼쪽에서 두 번째)

나눔의 시작은 스스로를 믿는 것

노래가 없었다면 버틸 수 있었을까. 지나온 시간을 떠올릴 때마다 이소담 씨가 자주 되묻는 말이다. 어린 시절 그는 넉넉지 않은 살림 속에서 동생들을 돌보며 장녀 노릇을 해야 했고, 제대로 먹고 입는 일조차 쉽지 않았다. 결혼 후에는 조금 평탄해지나 싶었지만, 남편이 운영하던 공장이 IMF 외환위기를 지나며 무너졌다. 결혼 후 열네 번 이사를 다니며 셋방을 전전하다 처음 분양받은 아파트에서 겨우 여섯 달 살아본 뒤 다시 나와야 했다. 집과 공장, 기계 설비까지 돈이 될 만한 것에는 모두 압류가 들어왔다.

“남편은 금형 기술자로 오래 일했고, 실력을 인정받아 소사장제로 본사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을 운영하게 됐어요 그런데 외환위기가 터진 거죠. 처음으로 우리 집이라고 들어간 아파트에서도 오래 살지 못했어요. 빨간 딱지가 붙고, 다시 거리로 밀려난 기분이었죠. 그래도 아이들을 키워야 하니까 뭐든 해야 했어요.”

아이들에게 줄 삼천 원이 없어 학교를 못 보낼 뻔한 날도 있었다. 그는 노점에서 그릇을 팔고, 화장품 외판원으로 일했으며, 라이브 바 무대에도 섰다. 그때 시작한 일 중 지금까지 이어오는 것이 라이브 바 가수다. 밤무대라 불리는 자리에서도 그는 멜빵 바지에 양 갈래로 땀은 머리를 하고 무대에 올랐다. 업장을 청소하고 정돈한 뒤, 매일 기타를 들었다.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든, 그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행복한가에 있었다. 타인의 시선에 자신을 맞추지 않고, 온갖 시련을 겪고도 자기 삶을 믿는 일. 이소담 씨에게 노래는 생계를 위한 일이기 전에 자신을 잃지 않게 해준 버팀목이었다.

하다



사진: 이소담 씨(오른쪽에서 네 번째)와 천사노래예술단 단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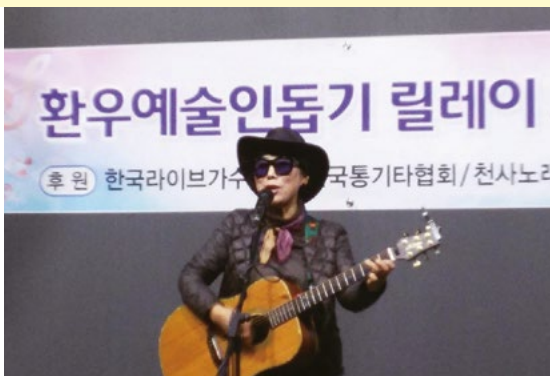


사진: 환우예술인 돕기 릴레이 모금 공연에 참여한 이소담 씨

더 큰 절망 앞에서 더 커지는 희망

조금씩 살림이 나아지던 무렵, 더 큰 고비가 찾아왔다. 군 복무 중이던 둘째 아들이 제대를 일곱 달 앞두고 백혈병 판정을 받은 것이다. 완치가 쉽지 않다는 말도 여러 번 들었다. 매일 수혈이 필요했고, 긴 투병 생활이 이어졌다. 부모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며 삶을 포기하려 했던 아들을 그는 반드시 살려야 했다. 그때 곁에 서준 이들이 있었다. 지금도 함께 활동하는 천사노래예술단 단원들은 매주 버스킹을 열어 이소담 씨와 아들을 위한 거리 모금을 했다. 사연을 들은 사람들의 후원도 이어졌다.

“그때 제가 안간힘을 내서 버틸 수 있었던 건 생명을 살리기 위해 함께 걱정하고 아픔을 나눠주신 분들 덕분이에요. 혼자였다면 못 견뎠을 거예요. 그래서 누가 노래해달라고 하면 시간이 맞는 한 가려고 해요. 제가 받은 마음을 다시 돌려드릴 수 있는 방법이 노래니까요.”



사진: 스위스 소녀를 연상시키는 차림으로
요들송을 부르고 있는 이소담 씨

“그때 제가 안간힘을 내서 버틸 수 있었던 건 생명을 살리기 위해 함께
걱정하고 아픔을 나눠주신 분들 덕분이에요. 혼자였다면 못 견뎠을 거예요.
그래서 누가 노래해달라고 하면 시간이 맞는 한 가려고 해요. 제가 받은
마음을 다시 돌려드릴 수 있는 방법이 노래니까요.”



사진: 대구 망우당공원 무료 급식 현장에서 어르신들을 위해 기타를 치며 노래를 전하는 이소담 씨

아픈 아들을 위해 부른 희망의 노래는 더 큰 물결로 퍼져나갔다. 이소담 씨는 소년소녀가장, 백혈병 환자, 시각장애인 등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거리공연을 하고, 매주 대구 수성못 야외무대에서 단원들과 함께 노래한다. 한 번은 어린이집 공연을 위해 찾아가는데 일정 공유가 잘못되어 단 한 명의 아이만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원장은 미안해했지만, 그는 오히려 기뻐했다. 그 한 아이를 위해 노래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했기 때문이다. 노래를 시작한 지는 50년 가까이, 노래 봉사를 이어온 지도 20년이 훌쩍 넘었다. 그러나 그는 그 시간을 ‘봉사’라고 말하지 않는다. 받은 마음을 노래로 갚아가는 일이라고 여길 뿐이다.

노래에 대한 꿈, 사람에 대한 희망

봉사 무대에서 이소담 씨가 주로 부르는 노래는 요들송이다. 어렸을 때 리틀엔젤스예술단이 부르는 요들송을 들으며 가수의 꿈을 키웠고, 고등학교 때

는 국내 요들송의 대가 김홍철 선생을 만나 전문적으로 배우기도 했다. 요들송은 누구에게나 익숙한 행복의 멜로디다.

“제 둘째 동생이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임종을 지켜보며 제가 두 눈을 감겨주었는데, 그때 깨달았어요. 매일 아침 눈을 떠서 다시 어제의 그 풍경을 볼 수 있다면, 살아갈 가치는 충분하다는 것ですよ.”

경제적 형편도, 성별도, 나이도 삶의 매 순간을 충만하게 살아내려는 마음을 이기지 못한다. 이소담 씨에게 60대 후반이라는 나이는 멈춤의 이유가 되지 않는다. 지나온 시간을 계속 되짚으며 아파할 이유도 없다. 그는 오로지 지금을 산다. 만학도로 대구공업대학교 스마트IT과에 입학해 올해 졸업반이 된 것도 그래서다. 어르신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도울 방법을 찾다가 새롭게 배움의 길에 들어섰다. 이소담 씨는 오늘도 스위스 언덕에서 걸어 나온 소녀처럼 차려입고 무대에 선다. 어려서부터 포기하지 않은 노래에 대한 꿈과 시련을 통해 온몸으로 겪은 사람에 대한 희망이 요들송 멜로디로 퍼진다. ☺

◆ 퇴직 후 제빵 봉사하는 최계호 씨

사진: 제빵복을 입은 최계호 씨가 갓 구운 마들렌이 담긴 팬을 앞에 두고 환하게 웃고 있다.



마들렌처럼 달콤하게, 시폰케이크처럼 부드럽게

높게 올라갈수록 낮게 내려오는
사람들이 있다. 최계호(77) 씨가
그런 사람이다. 중·고교 교사와
대학교수를 거쳐 경북과학대학교
총장과 한국지역진흥재단
이사장 등을 지낸 그는 지위가
높아질수록 비움과 베풀음의
마음을 더 크게 빚어왔다. 젊은 날
야학교사로 시작된 나눔 인생이
퇴직 후 제빵 봉사로 새 꽃을
피워간다. 손수 구운 빵마다 오래
익힌 사랑이 스며 있다.

제빵으로 향긋해진 노후

그의 삶에는 결심이나 작정 같은 것이 별로 없다. 대신 열심과 열정이 있다. 자신이 처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 손을 내밀어온다는 걸 그는 경험으로 안다. 그러니 지금 여기에서 성심을 다할 뿐이다. 새로운 문은 그 길에서 열리기 때문이다.

“제빵도 미리 계획하고 시작한 게 아니에요. 지인이 여기서 식당을 운영했는데, 그가 하던 일이 잘못되면서 제가 이 공간을 인수하게 됐어요. 퇴임을 앞둔 2017년예요. 갑자기 생긴 이 장소를 제빵실로 쓰면 좋겠더라고요.”

퇴직 후의 날들이 자연스레 그려졌다. 빵 굽는 기술을 배워 응원과 위로가 필요한 이웃들과 나누는 삶이었다. 제빵기능사와 제과기능사 자격증을 차례로 취득하고, 팔공산이 병풍처럼 펼쳐진 이곳에 관련 설비를 갖췄다. 대구대학교 초빙교수를 끝으로 오랜 교육자 생활에 마침표를 찍은 2019년, 봉사자로서의 인생이 마침내 시작됐다. 그는 주로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시폰케이크와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마들렌을 굽는다. 시종에서 판매하는 빵보다 덜 달다. 먹는 이의 건강까지 생각하기 때문이다. 레몬 향도 가미한다. 단지 빵을 굽기 시작했을 뿐인데, 인생이 마들렌처럼 달콤하고 시폰케이크처럼 향기로워졌다.



사진: 최계호 씨는 퇴임을 앞두고 인수한 공간에 직접 제빵 설비를 갖춰 제빵실을 마련했다.

사진: 대구 동산고등공민학교 야학교사 시절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최계호 씨





사진: 최계호 씨는 빵 나눔을 위해 제과-제빵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기도 했다.

봉사에 협업이 필요한 까닭

그가 빵을 보내는 곳은 무료 급식소, 사회복지시설, 경로당, 의료 봉사 현장 등이다. 발이 넓은 그에게 ‘빵을 보내달라’는 연락이 곳곳에서 온다. 일을 도우러 오거나 재료를 보내는 사람들이 간간이 있어 제법 큰 힘이 된다.

“그때그때 요청을 받아 제빵을 하지만, 정기적으로 빵을 보내는 곳이 한 군데 있어요. 대구 박언휘내과의원 원장님이 한 달에 한 번 진료 봉사를 하시는데, 그날 제가 45개 안팎의 시폰케이크를 만들어 병원에 가요. 무료 진료도 받고 제가 만든 빵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들고 가시기 쉽게 손잡이 있는 포장지에 담아드려요. 다들 좋아하셔서 저도 행복합니다.”

그런 식의 ‘협업’을 자주 한다. 2024년 12월 대구의 대안학교인 달구벌고등학교 학생들이 공산면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하러 갈 때, 그는 학생들을 초대해 제빵 실습을 시켰다. 직접 만든 빵을 어르신들께 드리면 그 의미가 더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지도하는 김천대학교 산학협력단 소속 교사들이 여기서 직접 빵을 구워 학생들에



사진: 박언휘 원장의 무료 진료 봉사에 맞춰 손수 구운 시폰케이크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 (위) 최계호 씨는 달구벌고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어르신들에게 전달할 빵을 만들었다.
(아래) 여러 봉사자들과 함께 빵을 굽기도 한다.

“빵을 가장 많이 구운 건 코로나 19가 대구를 덮쳤던 2020년 초예요. 식사도 제대로 못 하던 의료진들이 간식이라도 드실 수 있게 하려고요. 제빵 배우기를 참 잘했다 싶더라고요.”

게 나눠주도록 했다. 한 사람의 엄청난 봉사보다 여럿이 함께하는 작은 봉사가 더 힘이 세다고 그는 믿는다. 그가 협업을 강조하는 이유다.

“빵을 가장 많이 구운 건 코로나19가 대구를 덮쳤던 2020년 초예요. 대구의 구의회를 통해 동구청, 중구청, 북구청, 서구청, 달성군청, 수성구청, 경산시의 보건소장님들에게 마들렌과 밤과자 등을 3천여 개 만들어 보냈어요. 식사도 제대로 못 하던 의료진들이 간식이라도 드실 수 있게 하려고요. 제빵 배우기를 참 잘했다 싶더라고요.”

봉사를 위해 취득한 건 제빵·제과기능사 자격증만이 아니다. 몸이 불편한 이웃들을 돕기 위해 그는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따냈다. 휠체어 하나를 밀어드리더라도 허둥대지 않기 위해서다. 나눔이 배움을 자꾸 불러들인다.

나눔의 다른 말, 낮춤

돌아보면 인생 곳곳에 나눔의 발자취가 있다. 대학 시절 대구 동구고등공민학교에서 야학교사를 한 것이 그의 첫 봉사 이력이다. 가정형편 때문에 배움을 잊지 못한 학생들을 5년간 가르쳤는데, 학교 측의 신임을 얻어 운영까지 맡게 됐다. 그 시절 제자가운데 훗날 육군 장성이며 대기업 임원 등이 된 이들이 꽤 있다. 지금도 스승의 날이면 그에게 꽃을 보내오는 소중한 인연들이다.

“농어촌의 중·고교에서 수학 교사를 하던 시절엔 새벽 여섯 시에 출근해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시골은 도시에 비해 학생들이 제대로 교육받을 기회가 부족하니까요. 직업 안에서도 봉사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이후 대학 강단으로 자리를 옮겨 ‘직업 속의 봉사’를 실천했던 그는 2002년 경북과학대학교 총장으로, 2007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초대 이사장(차관급)으로 발탁돼 경력의 정점을 찍었다. 그런 그가 말한다. 높은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에서 벗어나야 비로소 봉사가 시작된다고. 벗어날 것에서 벗어난 그는 집부터 제빵실까지 경차를 몰고 다니며 바람처럼 가벼운 오늘을 산다. 과시 없는 그의 삶에 그만의 장밋빛이 번져 간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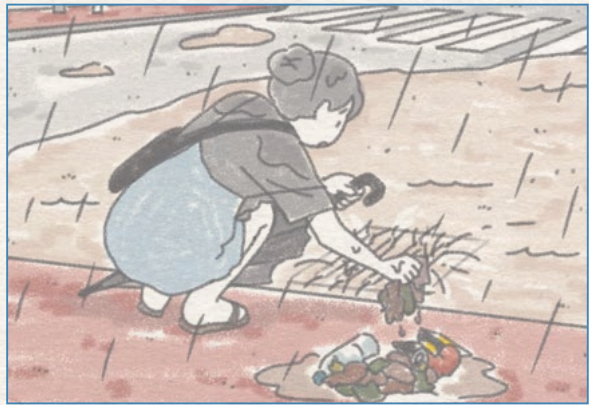
폭염과 폭우 속에서 더욱 뜨거웠던 용기



#1

폭우 속 맨손으로 배수구 뚫어 침수 막은 시민

수도권 전역에 집중호우가 내리던 작년 8월의 어느 날, 수도권 지하철 3호선 화정역 일대 도로가 빗물에 잠기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대로변에 큰 웅덩이가 생기고 물이 빠지지 않자, 한 여성이 한 손에는 우산과 가방을 든 채 도로 위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여성은 빗물 속 배수구를 막고 있던 낙엽과 쓰레기 등을 맨손으로 건져 올렸고, 막혀 있던 배수구의 물길을 틈었습니다.



삽화: 폭우가 쏟아지는 거리에서 한 시민이 쪼그려 앉아 쓰레기로 막힌 배수구를 손으로 치우고 있다.

#2



삽화: 폭우 속에서 시민들이 맨홀에 빠진 어르신을 구조하고 있다.

폭우 속 맨홀에 빠진 어르신 구한 시민들

2025년 7월, 광주광역시 동구 소태동에서 70대 어르신이 빗물에 휩쓸려 맨홀에 빠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인근에서 자동차 공업사를 운영하던 한 시민은 이를 발견하고 직원들과 함께 나무판자로 물길을 막아 어르신이 숨 쉴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이들은 거센 물살 속에서 약 20분간 구조를 이어간 끝에 어르신을 구해 119구급대에 인계했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 만연하는 ‘혐오’에 대한 반작용으로 ‘다정’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다정과 관련한 연관어 검색량이 지난해에 비해 150% 이상 상승했고, ‘좋은 사람’의 행동을 삽화로 모아낸 책이나 팝업스토어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2026년 《살맛나는 세상》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의 좋은 행동을 도감으로 보여드립니다.

#3

폭염에 쓰러진 환경미화원 구한 축구부 학생들

2025년 8월, 대구대학교 경산캠퍼스 국제관 기숙사 앞에서 쓰레기 수거와 정리 작업을 하던 환경미화원이 쓰러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피를 흘리던 환경미화원은 때마침 현장을 지나던 축구부 학생들에게 발견됐습니다. 학생들은 곧바로 응급처치에 나섰고, 미화원은 의식을 되찾은 뒤 병원 치료를 받고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삽화: 햇볕이 내리쬘는 야외에서 축구부 학생들이 쓰러진 환경미화원 곁에 모여 상태를 살피고 있다.

#4



삽화: 식당에서 한 시민이 쓰러진 배달 노동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으며, 옆에서 시민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심폐소생술로 배달 노동자 구한 시민들

35도가 넘는 불볕더위가 이어지던 어느 날, 광주 서구의 한 식당에서 20대 배달 노동자가 열탈진으로 쓰러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식당에서 점심을 먹던 수련지도사 두 명은 배달 노동자의 상태를 살핀 뒤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의 신속한 대처로 배달 노동자는 호흡과 의식을 되찾고 구급대원들의 부축을 받아 식당을 나섰습니다. ☺

2030 독자들의 '살맛나는 세상',
SNS를 통해 참여해 주신 여러분의
이야기를 공유합니다.

참여 주제

내가 바라본 [살맛나는 세상] 혹은
내가 만드는 [살맛나는 세상]
* 평범하지만 따뜻한 일상,
살맛나는 세상을 위한 나의 작은 실천

참여 방법

- 01 주제에 맞는 사진을 찍거나
갤러리에서 찾아본다
- 02 내 SNS 계정에 내용과 함께 업로드한다
필수 해시태그: #살맛나는세상
#코오롱 #오운문화재단
- 03 QR코드를 찍어 정보를 입력하고
제출한다



50명을 추첨하여 커피 기프티콘을 증정하며,
선정작은 《살맛나는 세상》9·10월호에 소개
이벤트 기간 2026년 7월 6일~8월 10일
당첨자 발표 개별 연락



yun***ng_podo



...

무료 급식소에서 매달 한 번씩 배식 봉사해.
“많이 담아줘요” 하시는 어르신 얼굴 보면서
최대한 수북하게 담아드려요. “맛있게 드세요”
한마디. “고마워요, 복 받을 거야” 한마디.
그 말 하나가 한 달을 버티게 해줘. 봉사는 받는 게
더 많은 일이야, 진짜로!

#살맛나는세상 #코오롱 #오운문화재단

사진: 봉사자들이 무료 급식소에서 배식 봉사를 하고 있다.



jin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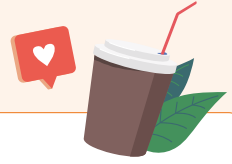


...

살맛나는 세상을 위해 플로깅으로 깨끗한 천변을
만들어 버려요!

#살맛나는세상 #코오롱 #오운문화재단 #플로깅

사진: 여성이 천변에서 플로깅을 하고 있다.



kim***5



...

파주에 있는 '유사천'이라는 곳으로 봉사다녀왔어요~
아이들이 엄청 순하고 착하던데 어떤 마음을
가져야 저렇게 순하고 착한 아이들을 버릴 수
있는지... 마음이 참 아팠지만 그래도 아이들을 잘
케어해주는 보호소라 봉사하고 좋은 맘으로
왔어요. 저처럼 혼자 봉사 오신 분들도 있고
연인들끼리 또 친구들끼리 가족들끼리 오신분들도
있었는데 참 보기 좋았답니다!

#살맛나는세상 #코오롱 #오운문화재단

사진: 보호소 안에 여러 마리의 강아지들이 누워 있다.



kan***255



...

좋은 친구들과 함께. 단 하루지만 일상을 탈출해보는
살맛나는 세상~ 1년 스트레스 싹 사라져요.

#살맛나는세상 #코오롱 #오운문화재단

사진: 캠핑 의자에 앉은 여성 셋이 손으로 브이를 만들고 있다.



82***rean



...

신비로운 것들을 보고 느낄 수 있어서 살맛나는 세상

#살맛나는세상 #코오롱 #오운문화재단

#무지개

사진: 전깃줄이 지나가는 하늘에 무지개가 떠 있다.

woo***awa



...

등산하고 산에 있는 쓰레기도 줍고!

#살맛나는세상 #코오롱 #오운문화재단

#플로깅 #등산

사진: 산길 표지판 옆에서 한 사람이 쓰레기 봉투를 들고 있다.

무더위 속에서도 여름은 늘 오래 기억될 장면을 남긴다. 해가 기운 뒤 오래된 길 위로 은은한 불빛이 켜지고, 숲과 계곡 사이에는 배우의 목소리와 관객의 웃음이 번진다. 누군가는 국가유산의 밤을 걸으며 새로운 시간을 만나고, 누군가는 야외무대 앞에 앉아 국경과 언어를 넘어선 이야기에 귀 기울인다. 보고 듣고 걷고 머무는 동안 축제는 낯선 문화를 가까운 추억으로 바꾼다. 이번 여름, 모두에게 열린 문화의 현장에서 계절의 한 장면을 새겨보자.

CULTURAL

문화로 채우는 청량한 여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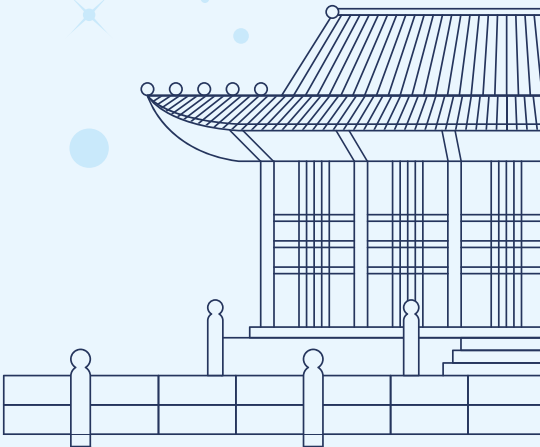


사진 출처 수원문화재단



사진 출처 거창문화재단

2026 수원 국가유산 야행



기간

2026.8.14.~2026.8.16.

장소

수원 화성 및 화성행궁 일원

해가 지면 수원의 오래된 길은 낮과 다른 표정을 드러낸다.

2026 수원 국가유산 야행은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을 배경으로, 올해 10회를 맞아 '열 번째 밤, 수원연향'이라는 이름으로 펼쳐진다.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방화수류정과 화홍문, 수원천 일원부터 행궁광장과 팔달문 일대까지 이어지는 길에서 관람객을 맞는다.

밤빛 아래 성곽을 거닐다 보면 야경 감상은 기본에 역사체험극 공연, 전통등 전시, 야간 마켓, 전통음식 체험이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수원천 물길을 따라 행궁광장으로 이어지는 동선마다 다채로운 밤의 풍경이 눈을 사로잡는다. 관람객은 걷기도 하고, 걷다가 멈춰서 잠시 머무는 동안 수원의 국가유산을 새롭게 만난다. 성곽에 내려앉은 불빛과 물길을 따라 흐르는 바람 속에서 수원의 여름밤은 한층 깊어진다.

제36회 거창국제연극제



기간

2026.7.31.~2026.8.9.

장소

거창군 수승대 일원

한여름의 거창에서는 자연이 무대가 된다. 1989년 시작된 거창국제연극제는 30여 년간 국내외 연극인과 관객이 함께해 온 야외 연극 축제다. 제36회를 맞은 올해는 '자유로운 몰입, 달달한 상상'이라는 슬로건 아래 7월 31일부터 8월 9일까지 거창군 수승대 일원에서 열린다.

국내외 공식 초청작과 경연 공연, 프린지 공연, 학술 행사 등이 이어지는 동안 관객은 숲과 계곡이 어우러진 공간 곳곳에서 연극을 만난다. 낮에는 수승대 계곡에서 피서를 즐기고, 밤에는 자연 속 야외극장에서 공연을 감상하는 여정이다. 야외극장에서는 무대와 객석의 경계도 없어지고 낮선 언어도 배우의 몸짓과 표정, 음악을 통해 자연스럽게 전해진다. 물소리와 바람, 배우의 호흡이 함께 흐르는 사이 거창의 여름에는 한 편의 연극 같은 여운이 남는다. ☺

이웃의 공간에 따뜻한 봄을 채우다

코오롱인의 봉사주간 ‘드림 파트너스 위크’

5월 18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코오롱인의 집중 봉사주간 ‘드림 파트너스 위크’가 진행되었다.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부터, 독립 유공자 후손의 집짓기 활동, 그리고 소외된 이웃의 주거 및 생활환경 개선 활동까지, 따뜻한 나눔으로 가득했던 여정을 함께 살펴보자.



사진: 코오롱사회봉사단 서창희 총단장이 강서구 경향지역아동센터를 찾아 벽화 그리기 봉사를 진행했다.



사진: 과천시지역 홀몸 어르신 가정에 단열재를 설치하고 있는 봉사자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든든한 드림 파트너

2013년부터 코오롱그룹에서는 매년 5월, 전 계열사 임직원들이 집중적으로 봉사활동을 펼치는 '드림 파트너스 위크'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코오롱인의 손길로 피어나는 봄, 한 장씩 쌓아 완성하는 더 나은 내일'이라는 테마로 진행되었다. 전 임직원이 소속되어 있는 코오롱사회봉사단의 대표 프로그램, '헬로 드림 (Hello Dream)' 활동이 펼쳐지는 전국 사업장 인근 지역아동센터 30곳의 시설 개보수 및 봄맞이 대청소를 비롯해, 과천종합사회복지관 및 노인복지관 등과 연계하여 다자녀·한부모 가정과 홀몸 어르신 가정의 벽지 및 장판 교체, 서울식물원과 연계한 외래식물 제거 활동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든든한 드림 파트너로서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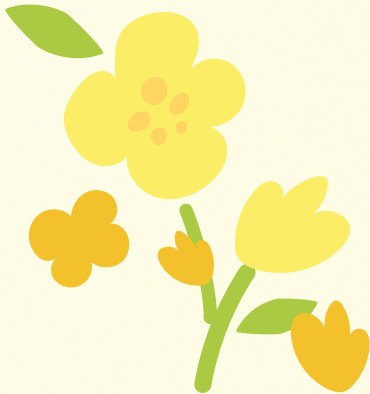
사진: 임직원 봉사자들이 지역아동센터에 새로운 수납장을 설치하고 있다.



사진: 코오롱생명과학 이한국 대표(아래서 두 번째 줄 왼쪽에서 여섯 번째)와 임직원 50명이 등촌9종합사회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발 벗고 나선 코오롱그룹의 CEO들!



코오롱그룹 계열사의 CEO들도 발 벗고 나섰다.
코오롱사회봉사단 서창희 총단장은 강서구
경향지역아동센터를 찾아 벽화 그리기 봉사를
진행했다. 코오롱생명과학 이한국 대표와 임직원
봉사자 50명은 등촌9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
내외부 곳곳에서 환경개선 활동을 펼쳤고, 생필품과
따뜻한 응원의 마음을 담은 손 편지를 소외이웃
가정에 직접 전달했다. 그 외에도 코오롱인더스트리
FnC부문 김민태 대표는 구월스토어에 방문해
시설 환경개선과 장애인들을 위한 점심 식사
배식 활동에 참여했고 코오롱글로벌 김영범 대표,
코오롱베니트 강이구 대표, 코오롱제약 전승호 대표,
코오롱스페이스웍스 안상현 대표 등이 전국 곳곳의
봉사 현장에서 임직원들과 함께했다.



독립 유공자 후손께 안락한 주거 환경을 선물하다

한편 지난 2021년부터 광복절 기부 마라톤 '815런' 후원은 물론 한국해비타트와 공동으로 독립 유공자 후손 주거 지원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2023년 충남 보령 김정규 선생의 후손, 2024년 전북 정읍 채복만 선생의 후손 집짓기에 이어 올해는 충남 당진에서 3.1운동 당시 1천여 명 규모의 대규모 만세 시위를 주도했던 독립 유공자 문만동 선생 후손의 집짓기 활동에 참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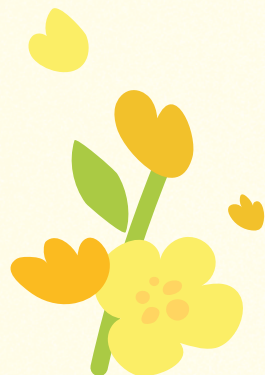
사진: 소외이웃 가정 집수리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임직원 봉사자들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나눔

누군가에게는 작은 손길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삶의 변화를 만드는 힘, 코오롱그룹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든든한 드림 파트너로서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나눔을 이어갈 예정이다. 🌻



사진: 독립 유공자 문만동 선생 후손의 집짓기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임직원 봉사자들





독자엽서

Thank you
2

김천수 할아버지의 헌신적인 봉사정신과
따뜻한 마음이 정말 인상에 남아요

김천수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읽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의 헌신적인 봉사 정신과 이웃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정말 인상에 남아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눔을 실천하며 지역 사회에 큰 기여를 하고 계신 모습이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폐지를 주워 생계를 유지하고 그 수익으로 도움을 주는 모습은 진정한 나눔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김천수 할아버지와 같은 분들이 계시어 우리 사회가 더욱 따뜻해질 수 있음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김천수 할아버지의 활동이 계속되기를 응원합니다. 건강하세요.

From. 장인선 님(강원 춘천시 스포츠타운길)



Ch **살맛나는 세상** +

‘살맛나는 세상’ 카카오톡 채널에서도 독자엽서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빨간 우체통에 채택되신 분에게는 ‘커피 기프티콘’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Thank you
1

‘우리’라는 결핍감을 만들어내는
코드코치의 모습이 정말 멋집니다

대학생들의 반짝이는 에너지가 느껴지는 ‘코드코치’ 동아리 이야기가 무척 인상 깊었어요!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해 부산 지역 대학생들이 전공 불문하고 모여 아이들에게 코딩을 가르치는 모습이 정말 멋지더라고요. 특히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우리’라는 결핍감을 만들어낸다는 표현이 와닿았습니다. 우리 사회의 미래인 청소년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이런 청년들의 활동이 더 많이 소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From. 방로사 님(경기 김포시 김포한강1로)

Thank you
3

주는 기쁨이 일궈낸 허완 씨의 진짜 마술!
그 모습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마술로 전하는 마법 같은 위로! 제목만으로 마음이 따뜻해지고 사진 속 온화한 미소에 저절로 웃음이 피어납니다. 일흔이 넘으셨음에도 마술을 사랑하고 TV 속 마술 공연을 보며 자신도 저런 웃음을 만들어 몸도 마음도 어려운 분들에게 위로가 되는 공연을 하시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배우는 것에 머물지 않고 트릭의 원리를 짚어보고 본인의 방식으로 풀어내고 연구하여 완성한 마술 도구가 400여 개에 이른다니,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주는 기쁨이 일궈낸 진짜 마술! 보고 싶네요.

From. 정영숙 님(광주 광산구 송도로)

#나눔_밸런스게임

2030 살맛 독자들의 '나눔' 취향은?

《살맛나는 세상》과 함께해 주시는 2030 여러분,
당신의 나눔 취향을 알려주세요.



 20초면 참여 완료!



01
QR코드 스캔!



02
직감대로 선택!



참여해 주신 분들 중 **30명**을 추첨하여 커피 기프티콘 증정
이벤트 기간 2026년 7월 6일~8월 10일 **당첨자 발표** 개별 연락

오운문화재단

